

월간 총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78 3월호

아직 눈물을 거두어선 안됩니다

세상에, 슬퍼서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동해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겁니다.
과거 한 세기를 통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6년간 애정의 압제로 이 민족이 20세기의 기형아가 된 것이 서려워서 울었고, 게다가 뜻하지 않은 38선이 생겨 금수강산의 허리가 동강나고 보니 해방이 되었다고 망명애국지사들이 고국이라고 이 땅에 돌아왔으나 38선의 아픈 상처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쳐 울어야 했고, 6.25 사변으로 이 땅의 산하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그 폐허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민족의 비운을 해결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민족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을 울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눈물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가 더 필요한 민족인 듯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도 눈물보다는 위로가 필요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고 하셨습니다.

“올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회개를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와 내 후손의 급선무요 최대의 과제입니다. 가난과 고달픔,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고독의 문제를 놓고 울 것이 아니라 죄를 부둥켜 안고 울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가난과 고달픔, 사망과 이별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흘린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시 51편). 그는 빈곤이나 원수의 추격과 배신의 고독이 있었지만 그것이 서글퍼서 울지를 않았습니다. 피흘린 죄 때문에 침상이 색도록 울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심히 울었습니다(마 26:75).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마 26:31)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으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운 교만죄를 범한 것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속도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회개의 눈물이 없었으나 베드로는 슬피 울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 죄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울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① 야이로의 딸이 방장 죽었고(막 2:35), ②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 상여에 메고 장지를 향하고 있었고(눅 7:11), ③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났고(요 11:39), ④ 에스겔 골짜기의 송장들은 죽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해골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장들이 놀랍게도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가요? 저들의 부모와 형제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살려줄 것을 호소할 바로 그 때에 죽었던 저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야고보는 멸망해 가는 부자들을 향해 너희가 살려면 올라고 했습니다(약 5:1-6).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 죽은 아들을 살렸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눈물이 있는 한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이 일어나듯, 양단된 남북이 합하여 하나가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국교회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성전은 지어질 것이고 천국일군도 키워질 것이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강자를 만듭니다.
그러니, 아직 눈물을 거두어선 안됩니다. (주 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눅 23:28)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
들을 향해 하신 말씀
입니다.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3월의 행사

5일/정기제직회·구역교사준비공부
 6일/성경학원·지도자양성부(제13기)개강
 10일/교회철야기도회
 12일/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재정위원회 월
 레회 청년부 헌신예배
 14일/해외이주자교육
 16-17일/학습·세례 문답
 17일/세례식
 19일/성찬식·여전도회·출판위원회 월레회
 20일/교육위원회월레회
 20-25일/고난주간(특별 새벽기도회)
 26일/부활주일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월레회·중등부헌신예배
 28일/정기당회

3월호의 차례

<권두언> 아직 눈물을 거두어선 안됩니다/주간...	2
<이달의 말씀> 다시 사신 예수님/김창인 목사.....	4
<이렇게 말한다>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떡과 잔의 처리는?/김태현 목사.....	6
<특집 : 주님의 고난>	
① 복음서에서 간주된 주님의 고난 1주일의 행적/정기성 목사.....	7
② 수난곡이란 무엇인가/김중석 전도사	10
<특별 기고> 성찬과 성찬예식에서 받는 은혜/백성통 목사	12
<시편에서 읽는 주간의 만나>	13
<1200자칼럼> 살아 계신 주/이형수 집사.....	14
<찬송가감상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주 /김중석 전도사	16
<구역장노우트⑤> 구역집회지침/백성통 목사.....	15
<교회뉴스>	16
<편집후기·광고>	18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
<실로암 못가에서>	20

표지설명 : 온갖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돌아가
 셧다. 좌우에 강도들과 같이.

월간 충현

충현교회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다시 사신 예수님

성경/요 20:11-2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당회장>

오늘은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머지 않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남은 때는 승리자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더럽고 못난 사람의 손에 잡히시고, 반역자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사형집행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둘째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셋째 천국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마침내 운명하시게 되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성공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패잔병으로 실패자로 억울함을 입어 죽으시는 것 같은데, 그처럼 성공자의 개선거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좌우로 갈라집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로막혔던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2.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자들과 그들의 종말

가장 애국자 정통파라고 뽐내던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상 향락에 기울어지기 좋아하는 사두개파와 민족을 남의 사람에게 넘겨주는 헤롯당 등이 총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롯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의 위치에서 온30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니다. 온30이면 종(노예) 하나를 사는 돈입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판 돈을 한 톨 썬보지도 못한 채 양심의 가책으로 견디지 못하여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 길로 돌아가 목을 매었습니다. 잘못 댔는지 끈이 끊어졌는지 땅에 떨어질 때에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롯 유다의 명에는 반역자의 낙인이 찍히고 그의 이름은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더도 대장에 의해 포위 당했습니다. 맞아 싸우자니 힘이 없고 견디자니 양식이 떨어질 때에 굶어죽고 병으로 죽고 시체가 쌓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100만명이 넘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로 물들여 예루살렘은 저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건강한 남자와 젊은 여자들은 구리굴에 걸박 당하여 로마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다가 죽었습니다.

3.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시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지냈습니니다. 바리새인들, 헤롯당,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인봉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허락 없이 뜯으면 잡아가웁니다. 죽입니다. 그뿐입니까?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르자 이 군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빛이 비쳐 옵니다. 무엇인가 하는 찰라에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러버립니다. 그 광경을 펼쳐 보던 군인들은 그만 잠시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몸에 잠았던 새마포옷을 차곡차곡 개어 놓으시고 머리를 싸았던 수건도 차곡차곡 개어 놓으시고 무덤을 나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거숭이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으로 옷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왜 필요 없는 수의와 수건을 차곡차곡 개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질서있게 살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쓰레기까지 질서있게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떠나셨던 영혼이 육체에 다시 돌아온 부활입니다. 아니, 그보다 차원이 높습니니다. 옛날 에덴동산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처럼 다시 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없으신 영화로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영생활 수 있는 부활입니다.

다음, 예수님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선이 악 앞에 눌려 고생할 수도 있던 세상에서 마지막 악을 밟고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거짓이 임시로 선전해서 정직한 사람을 몰아 치우는 세상에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것을 밟아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째 사람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세상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생명이 사망을 밟아버리는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위에서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나 그 몸뚱이 똑같이 보여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땅위에서 천년 살 것처럼 덤비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늘에 선을 쌓아 놓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던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할 줄을 모르고 선한 일에 용맹스럽게 전진합니다.

땅위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4. 다시 사신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

이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열두 제자 중 유명한 열십쟁이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한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을 꺾어져 키운 마리아도 아니고,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육이 새사람된 막달라 마리아는 악마의 결박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쳐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장례식 끝난 뒤에는 예수님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바를 향유와 기름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 다.

인간적으로 너무 바보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배울 것은, 사람이 뜨거운 자에게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뜨거운 자에게는 재산도 뒀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신 무덤 밖에서 혼자 슬피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계시면 영적 고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입니다. 전등불은 빛이 나가면 깜깜합니다. 인간은 예수님 떠나가면 악마의 소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고?” 하십니다. 눈을 떠보았다면 알텐데 눈을 꼭 감고 추측을 합니다. “당신이 내 주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내게 알려

주세요.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 주십니다.

정신이 퍼뜩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드러지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어안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내 발을 만지지 말라!” 엄격하게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는 가서 내가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에도 믿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 들어오셨는지 “너희는 평안한지이다!” 하십니다.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으로 평안을 삼니까? 권세는 평안을 잡아 옵니까?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만져 봐라! 창자리지?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고 사흘만에 다시 살리라고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의심하지 마라!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주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한번이나 나타나시어 하늘나라의 진리와 땅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당파싸움에 쫓겨서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지은 죄는 남겨 놓지 말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시다.

우리는 내 생명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책임에 땀과 눈물과 물질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머지 않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나갈 준비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여서 영광되게 할렙루야로 우리 주님을 마중나갑시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 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 이렇게 답한다 □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남은 떡과 포도주는 땅에 묻어

김 태 현 목사

<부목사·성경학원 교무>

물음/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포도주와 떡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그리고 성찬식 때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와 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주의 만찬」(Lord's Supper)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어주시며 너희들을 위해주시는 자기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셨습니다(마 26:26). 다음은 포도즙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마 26:28).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하셨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신약에 따라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지켜왔습니다. 성만찬식의 떡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을 삼아 그 대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살아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것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영적 입재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식에 필요한 잔과 떡을 준비하는 데 보다 더 말씀을 중시해서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위의 사실을 상기하면서 아래 일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떡은 어떻게 만드는가?

떡을 만드는 데는 먼저 재료는 맷살로 깨끗이 씻은 다음 가루를 만들어서 체로 걸름니다. 그러면 보드라운 가루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시루에다가 넣고 시루 떡을 찌듯 찌면 됩니다.

이때 물기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떡이 줄게 되므로 분병할 때 쓰기에 편리하지 못합니다. 시루에 찌어서 만든 떡은 분병에 쓸 수 있도록 썰어서 접시에 담습니다.

2. 포도즙은 어떻게 만드는가?

가급적 좋은 포도를 사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다 짜우고 포도알을 다 털어가지고 가제로 깨끗이 물기를 닦습니다. 깨끗해진 포도알은 포도 한판에 설탕 한근을 넣어서 그릇에 담아 솥에 올려 넣고 열을 60° 이상 100°이하로 온도를 높입니다. (이것을 중탕이라고 합니다.) 중탕된 것은 채에 거릅니다. 찌거기는 버리고 걸려진 포도즙을 다시 그릇에 담아 솥에 올려 놓고 열을 60° 이상 100°이하로 온도를 높입니다. 이때 포도즙 담을 병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병과 마개들은 모두 100°가 넘는 물에 소독을 했다가 끓인 포도즙을 병에다 붓고 붓는 즉시 밀봉합니다.

또 밀봉할때는 병과 포도즙은 다 높은 열을 가한후이기 때문에 뜨거움으로 인해서 깨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때 기구는 물론 뜨거워졌기 때문에 집게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밀봉한 다음 이상이 있는 것은(밀봉이 잘 못되었을 경우) 하루동안 사이에 병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봉된 포도즙병은 사람이 닿아가지 않는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떡을 만들 때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도도 준비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기구는 깨끗이 씻고 소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례교인수에 알맞게 성찬상에 준비해야 하며 준비되었던 떡과 잔이 분배된후 남은 것은 땅에 묻습니다. 이것은 거도하므로 성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례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례식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특히 이 성찬식에 임함에 있어 청성껏 준비하게 함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금년 부활절을 맞으며 월간총현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꾸몄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고난을 요일별로 간추려 보며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복음서에서 간추린

주님의 고난 1주일의 행적

정 기 성 목사

<부목사·진도위원회 지도>

주일(주후30년 4월 1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마 21:1-11, 요 12:12)

우리 주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유월절을 몇일 앞 둔 예루살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 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쪽에서 들어오셨다.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에 그의 교훈을 듣고 도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요병이여의 기적을 보고 맥을 얻어먹던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을 유대나라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하여 호산나 만세를 부르기 시작한다.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표시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펴기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외쳤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진동하였다.

예수님은 스가랴 9:9에 있는 말씀대로 왕으로 그의 도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그러나 군중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군중들은 제한된 한 민족의 왕, 육체의 왕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의 왕되심은 온 우주의 왕이요 영원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월요일(주후30년 4월 3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마 18-20, 막 11:12-14)

성밖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쉬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었다. 도중에 시장기를 느끼신 예수님은 베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셨다. 그러나 일단 무성했지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막 11:15)

성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길로 곧 성전에 가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느라고 소란한 것을 보셨다.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으셨다. 짐승을 내몰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쫓았다. 돈 바꾸는 상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책망을 듣는 자들의 눈길은 회개와 빛 대신에 시기와 원망의 눈으로 가득채워져 있었고 “어디 두고 보자”식의 노기였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 전과 같이 쉬시기 위하여 성밖으로 나가셨다.

화요일(주후30년 4월 4일)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하시다(마 21:20)

그 이튿날 제자들은 성으로 들어오는 도중 놀라운 것을 보았다. 어제 예수님께로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성급한 베드로는 놀라운 얼굴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음의 교훈을 해 주시었다.

성전안에서 힐란을 받으시다.

성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제의 그 성전으로 가셨다. 책망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힐난한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

“예수께서 뱀바게 건너 마을에서 발견된 나귀새끼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유하시게 되었다. 그는 호산나 찬송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의 영접을 받으셨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께서는 입성하신후 성전에서 가르치신 다음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다음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다. 만찬 후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동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는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와 스승을 배반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거기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다시 대제사장이 주재한 비공식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셨다.”

요 8 시기에 찬 질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무지에 찬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안타카이 여기서 여러가지 비유로 저들을 깨우치려 말씀하신다. 말 안 듣는 말아들의 비유(마 21:28-32) 탈락한 농부의 비유(마 21:33-46) 왕자의 잔치를 거절한 악한 사람들의 소행(마 22:1-14) 등을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합정에 파치려는 질문을 한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니까” “부활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답변하시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마 24장)과 주의 재림 때에 되어질 일들(마 25장)을 교훈하여 주시었다.

■ 수요일(주후30년 4월 5일) ■

유다가 배반하다(마 26:14)

예수님은 아직 성막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실때 한편 성안 가야바 대제사장 아문에서는 예수님을 제제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중 하나인 가롯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대제사장의 회회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고 협상한다. 제사장들은 기회가 왔다는 뜻이 온 30을 달아 가롯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고 있다.

■ 목요일(주후30년 4월 6일)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요 1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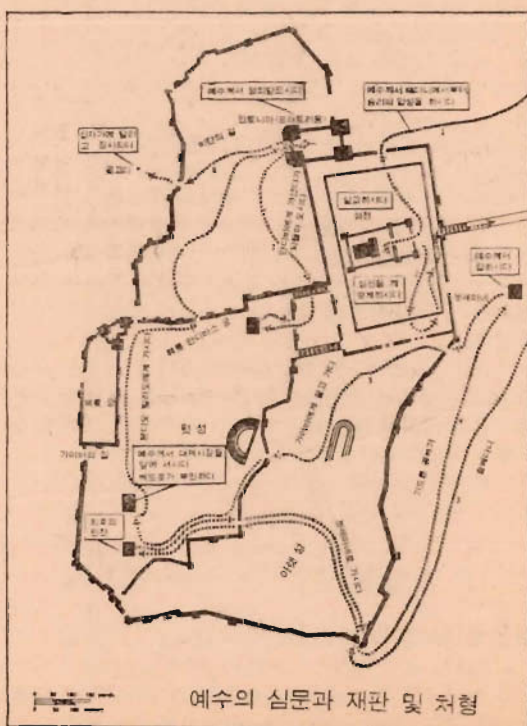
유대인의 최대명절 유월절 양잡는 날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성내에 한 여성도의 집 이층 다락방으로 가시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가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신다. 잡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더니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

리에 두르신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떠오신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씻기 시작하신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서 관이 없느니라”고 답하시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겸손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었다.

반역자를 지목하시다(요 13:21-30)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심히 민망한 표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여 누구오나이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하시며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신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



“법정뜰에서 불췌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셨다. 그를 심문한 자들은 예수의 대답을 참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인 혐의를 씌워서 본디오·빌라도에게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죄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함으로써 황제에게 반역하였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 끌고다로 향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끌고다라는 예루살렘 제 2 성벽 밖에 있는 낮은 언덕이었다. 여기서 예수는 로마식 처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박혀 운명하셨다. 예수의 시신은 이곳에서 가까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었다.”

이 말을 들은 가롯 유다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가 버린다. 자기의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다. 이제 사단은 완전히 유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마지막 만찬이 베풀어지다(마 26 : 26—29)

이와같은 일이 있는 후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다 이것을 마시라 피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첫번 성만찬식을 베풀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었다.

겔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마 26 : 36—46)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이 산 서쪽 기슭 아래에는 겔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최후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던질 만한 거리로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입드려 기도하신다 그 이마에서는 피와 같은 땀이 떨어졌다.

■ 금요일(주후30년 4월 7일) ■

예수님이 잡히시다

예수님은 기도중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온 것을 환기시키고 있을 때 무리들은 동치와 검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열 두 제자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서더니 “람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넘겨 주기 위한 군호의 간사한 입맞춤이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악당들에게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심문을 받으시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유대인의 하속들은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갔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

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있을 때 저들은 분을 내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었다.

그러나 재판권이 없는 저들은 당시의 총독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저들은 여러 말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으나 역시 죄를 찾지 못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저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고 석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들은 너무도 무지하고 끔찍한 말을 한다. 빌라도는 민란이 날까하여, 자기 신변을 위하여의 인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편 류관을 씌우고 갇은 회통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 큰 십자가를 지워 끌고다란 언덕으로 끌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힘이 없어 쓰러지면 저들은 채찍질한다. 그러나 저는 말이 없으셨다. 양이 털썩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았다.

누구를 위한 채찍인가? 곧 예수님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우셨다.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사정없이 들어갔다. 피가 이마에서 양손과 양발에서 흐른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고도 회통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열 두 용되는 천군 천사로 저들을 멸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고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는 정오였으나 지상은 어두움으로 덮혀진다.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된다.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다. 다시 한 번 외치실 때는 성전휘장이 물로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다른 로마군인들이 말하였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

수난곡이란 무엇인가?

바하의 요한·마태 수난곡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 ...매년 부활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
- ...하하며 「축하음악예배」를 드리곤 한다. 그러나 이...○
- ...기쁜 부활에 앞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떠한...○
- ...자세로 임하는지... 3월호의 특집을 「주님과 고난」...○
- ...으로 맞추며 음악을 통해서 보는 고난의 의미를 찾...○
- ...아본다. 고난주간중 22일(수)에 대학부성가대와 제...○
- ...이성가대에서는 바하의 〈요한수난곡〉을 연주 발표...○
- ...하게 된다. <편집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난곡(受難曲)」이라고하면 「성경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기록을 가사로 해서 작곡한 음악작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수난곡은 으레 기독교 음악으로 될 것이요 다른 종교의 음악으로서 수난곡이라는 음악 용어로 불리우는 곡은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장 유명한 바하(J.S. Bach)의 「요한 수난곡」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30절까지 말씀을 엮은 것이고 그의 「마태 수난곡」 역시 마태복음 26·27장을 노래하고 있다.

1. 수난곡의 역사

우리가 현재 「수난곡」이라 하면 칸타타(交響曲)합창과 중창 독창이 섞여 가면서 어떤 줄거리를 노래하는 형식의 음악) 형식의 것, 혹은 오라토리오(聖歌曲-성경이야기를 내용으로 하여 관현악 반주로 독창 중창 합창이 방대하게 펼쳐진 음악) 형식의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난곡은 처음부터 복잡한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매사 그럴듯시 수난곡도 처음에는 매우 단조로운 것이었고 규모도 작았다.

본래 수난곡이 생성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느끼어 그것을 노래로 부르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매우 간단한 가요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새찬송가에도 여러편이 수록되어 있다. 두번째 경우는 교회가 정한 수난의 절기에 예배를 위한 특별한 음악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예배에 맞게 쓰여진 경우이다. 이때는 음악이 걸던 예배진행에 문제가 생기므로 찬송가 보다는 길다 하더라도 요즈음 수난곡 처럼은 길지않은 수난의 음악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곡은 수난곡의 옛형태로서 카톨릭의 수난곡중에 남아 있고 우리 개신교 수난곡으로는 잘 연주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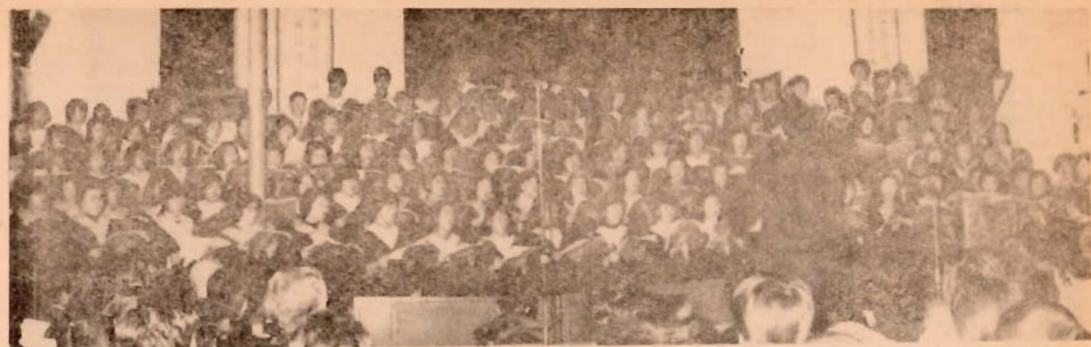
이런 두 경우에 의해 시작된 수난의 음악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초대 교회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던 것이 예배에의 쓰임에서 벗어나서 음악 자체 만을 위하여 쓰여지고 연주케 되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변모 발전하면서 점

차 칸타타적 혹은 오라토리오적 수난곡이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이 1917년에 일어나기 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배에는 주님의 고난이 기록된 마태복음 26, 27장을 낭송하고 화요일에는 마태복음 14, 15장을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22, 23장을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18, 19장을 낭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9세기에와서는 그냥 낭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예수, 베드로, 빌라도, 백성 등)의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표시를 해 놓고 이에 따라 낭송케 했던 것이니 이런 표시에는 C[celerite 빨리], t[tenere, trahere 천천히], S[Sursum 높게] 등이 있다.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사제(司祭), 조제(助祭 부조제의 3인이 그리스도, 복음가자(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군중이나 그밖의 인물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다른 음높이로 혹은 다른 속도로 성경의 수난 장면을 부름으로서 극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15세기에 들어서는 예배에 쓰인 수난곡 중에 군중 역할을 합창으로 쓴 것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합창이라 하는 것은 여타 파-트(성부)가 노래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합창과 같지만은 찬송가 합창 처럼 화성적인 합창이 아닌 다성부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들기에 화음이 맞지않고 복잡한 감을 주는 합창이다. 다성으로 노래하게 되자 사제 조제 부조제의 3인만으로는 부족하여 자연히 다수인이 참여케 되었다. 이와같이 조제(助祭)가 낭송식으로 노래하든 다수인이 합창으로 받아 부르는 식을 웅장적(應唱的) 수난곡이라 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16세기에는 군중역할 뿐 아니라 복음가자의 역할도 합창으로(다성부로) 지은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합창으로 부르고 합창으로 받아 부르므로 통작적(通作的) 수난곡 이라한다. 통작수난곡은 별로 성행하지 못하였고 오늘날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웅장수난곡은 16, 17세기에 북이탈리아악인(樂人)들에 의하여 많이 쓰여져 스페인인 게레로(F. Guerrero)의 5개 수난곡 빅토리아(T.L. da Victoria)가 시스티나 예배당을 위하여 쓴 2개 수난곡,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궁정에배당을 위해 라수스가 쓴 4개 수



난곡, 영국 다비(R. Darvey)가 1490년경 이튼교(校)를 위해 쓴 마태수난곡 등이 중요곡으로 남아 있다.

[개신교 음악]

바로 이러한 때에 일어난 개신교회는 17세기가 되기까지는 주로 웅장적 수난곡을 써 왔고 가끔 통작수난곡을 쓰기도 했다. 월터(J. Walter)가 쓴 것이 개신교 웅장수난곡의 효시로 간주된다. 17세기에 예배용으로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부적합한 오라토리오적 수난곡이 등장하였다. 이것이 등장하자 예배용 수난곡으로서는 예술적 질작이 나오지 못했다. 음악인들이 앞을 다투어 음악만을 위한 규모가 큰 수난곡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다메(E. Damais 1948)나 젤리노(J. Gélinau 1949)의 시도가 있기는하다. 개신교 웅장수난곡으로서는 하인리히, 쉬츠의 3개(누가, 마태, 요한) 수난곡에서 결정에 달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

2. 오라토리오적 수난곡

17세기 중엽부터 일어난 오라토리오적 수난곡은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전의 수난곡과 다른 점은 수난의 성경가사를 여러가지로 편작하기도 하고 다른 성가집에서 가사를 따라 쓰기도 하고 묵상적 종교사를 삽입시키기도 한 점이다. 그전에는 성경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삼았던 것이다.

3. 수난칸타타

오라토리오적 수난곡과 함께 수난칸타타도 출현하게 되는데 18세기에는 이 양자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다만 수난칸타타를 오라토리오적 수난곡보다 규모가 적다고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음악은 관현악, 독창 중창 찬송가 서창(Recitativ)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마치 동작없는 하나의 극처럼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내용이 한사람(예수, 베드로, 시몬, 빌라도)이면 독창으로 엮고 군중의 외침은 합창으로 엮었다. 대목과 대목사이에 필요에 따라 성경가사 아닌 찬송가(choral)와 영창(독창곡 Arie)을 넣었다. 그리고 성경내용이 설명식으로 된 부분은 복음기자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말씀은 복음기자와 성경상의 인물들이 노래하게 되어 있는 셈인데 다만 성경과 다른것은 그 가사가 성경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씩 각색되어 있는 점이다.

현대의 디스틀리(H. Distler), 토마스(K. Thomas), 페핑(E. Pepping), 레다(S. Reda), 미고(G. Migot), 마르탱(F. Martin)의 수난곡도 오라토리오수난곡에 속할 수 있는데 예배와의 결합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특성이다. 수난칸타타는 오라토리오적 수난곡보다 먼저 생긴 것으로 대개 성경분목 다음에 또는 설교에 이은 순서로서 연주되는 것이었다.

4. 바하의 2대절작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수난곡은 바하의 <요한수난곡>과 <마태수난곡>이라고 생각된다. 이 둘은 모두 오라토리오적 수난곡에 가깝고 성경적 성경이 강하면서도 서정적 극적 요소로 가득찬 말하자면 종합적인 작품이다. 교회음악가로서의 바하의 능력의 절정은 요한수난곡과 마태수난곡에서 나타난다.

요한수난곡은 요한복음 18:1~19:30까지 내용을 복음기자(테너), 예수(바리톤), 베드로(베이스), 빌라도(바리톤), 남자하인(테너), 여자하인(소프라노), 군중(혼성합창)으로 노래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14개의 찬송가(choral)를 삽입 했는데 가사는 부록스(B.H. Brooks)의 수난시를 이용했다. 그리고 소프라노독창 2개, 엘토독창 2개 테너독창 2개 베이스독창 2개를 삽입했는데 이도 성경말씀에 대한 신자의 신앙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일 처음과 끝에 두개의 큰 합창을 성경아닌 종교시로서 특별히 첨가하였는데 작곡자가 특별히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꼭 전체의 분위기를 조직적이면서도 극적 박력이 넘쳐 흐르고 있다. 1724년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초연되었다.

마태수난곡은 요한수난곡을 지은 다음에 곧바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5년후 1729년 초연 되었다. 대체로 요한수난곡보다 연주에 기교를 요한다고 보여진다. 2중창, 여럿의 독창, 관현악을 쓴 대서사시적 극이라할 것이다. 가사는 성경의 마태복음 26, 27장을 요한수난과 비슷한 형식으로 썼다. 새찬송가 164장 '오 거룩한 머리에'의 선율이 여기서 5번이나 등장하는데 배변 음조와 화음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이곡에 쓰인 성경아닌 가사는 헨리치(C.F. Henrici·라이프찌히의시인)의 시(詩)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수난곡에 대한 역사와 구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수난곡은 성경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마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깊은 맛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급변 수난절을 당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수난의 역사성을 확인하면서 수난곡을 직접 대하여 그의 고난의 일부분이 나마 체득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바하의 마태수난곡이 음반으로 나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것을 거듭 소망한다. (*)



성찬과 성찬예식에서 받는 은혜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1. 성경적인 근거

성찬은 세례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두가지 성례중의 하나이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마 26:26-29, 막 14:22-25, 눅 22:19, 20, 고전 11:23-25, 이 비국에서 찾게 된다. 좀더 소급해서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본다면 유월절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찬예전을 유월절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제정하시었다. 이로써 유월절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실 일에 예표가 된 것을 분명히 해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이후로는 다시 피흘리는 성례가 필요치 않게 되었고 다만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효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전을 시행할 따름이다.

2. 성찬에 대한 표준문서의 증언

소요리문답 96번에 보면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음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육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는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이 그의 모든 효력을 받음이니라. 대요리문답 168번에는 “주의 성찬은 신약의 성례이니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바에 의해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보여준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그의 몸과 피를 먹어 그들이 영적 양육과 은혜에서 자람을 얻으며 그로 더불어 연합과 교통을 든든하게 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악조, 동일 신비한 신체의 지체들로서의 그들의 상호애(相互愛)와 피차 교제를 증진하며 경신한다”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조에 의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한 그 자신의 회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의 회생의 모든 혜택을 참 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와의 교통 및 그들 상호간 교통의 매는 줄과 보충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3. 성찬예식에서 받는 은혜

위의 신앙표준문서에서도 명시한 바 있지만 성찬예식에서 얻는 은혜와 축복은

(1)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통하는 은혜이다.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성찬에서 그 연합된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신 것은 마음에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성찬은 그의 고난과 죽음

에 동참하는 은혜의 상 것이 된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내 안에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내세의 기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한다.

(2)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된 사실의 보증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표식에서 얻어지는 은혜이다. 주님은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셨다. 그 형식상의 문제는 어떻든 그 내면에 흐르는 신령하는 의미는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 간에 연합과 사랑의 실체를 말씀하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을 번역하는 유다를 지적하시야만 했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뜨게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시 1:5참고).

(3) 언약의 보증으로 인을 찍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을 친다는 말은 여러가지 뜻에서 분명한 하나의 공통된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과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는 일에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 성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표로서 성례전을 명하신 것이다. 성찬에서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은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더욱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주님 재림하실때까지는 이 성례전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다.

(4) 양육과 성장하는 은혜이다(요 6:53-57). 성찬은 단순한 상징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마음에 믿고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실제적으로 그 효력은 은혜의 증진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것은 성찬을 베푸는 사람의 덕이나 그 요품(떡과 포도즙)의 물질적인 요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므로 이뤄지는 은혜의 적용인 것이다.

성찬에 의한 양육과 성장의 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과 그 효력은 동일한 것이지만 다만 말씀 없이는 그 효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이 말씀의 능력과 다른 점이다. 말씀은 양육과 성장에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5) 헌신·봉사를 공언하는 표가 된다. 이것은 이상에서 받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신앙생활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적인 은사이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값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이 이 몸을 바친다는 감격적인 충성 봉사는 성례전을 통해서 받는 은혜에 젖어 있을 때 공언하는 것은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성도가 현실을 살아가는 진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는 것이다. *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29: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첫째로, 힘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심판하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홍수를 주장하시며 우뢰와 뇌성을 주장하시는 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일했으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는 신세에 약한 듯하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므로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모두 이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힘을 통하여 세상과 그 정욕을 이깁시다.

둘째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심판의 뇌성벽력이 원수에게는 두려운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과 위로의 음성이 됩니다. 6·25사변 때 제트기와 B-29의 요란한 소리가 공산군에게는 공포의 소리였으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 골짜기 이 광야 저 광야를 피신하여 다닐 때, 하나님의 뇌성벽력을 듣고는 위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들이 아무리 덤벼도 별 수 없다. 잠깐만 참아 보자”하는 다윗의 신앙,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만가지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가지 사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즐거워하고 조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시편 30: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대강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하나님이며”라고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주시는 내 보급창고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모시었습니다.

나와 이렇게 가까우신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관할하시는 내 임금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내 하나님! 되시므로 내가 비록 죽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케 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회개하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과 멸망받을 무서운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1-4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억울한 환난을 당하여 쫓길 때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잠깐 후에는 안식처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뢰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 욕이 되므로 사람이나 불신사회 앞에서,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려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소원이 만사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는 공로 없으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면 죄인이 받는 재앙을 면하겠다는 것입니다.

3.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어.”

내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자랑하였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욕이 안 돌아가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4. “비밀히 천 그물에서 빼어 내소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군대와 부하들은 힘만 강한 자가 아닙니다. 모략도 극히 잘 베풀어서 마치 새나 물고기 그물을 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에 다울무를 배치하여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힘으로도 안될 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주님을 산성으로 삼고 그 속에 숨으려 하였읍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700 2v 찬송

살아 계신 주

이 형 수

봄빛이 완연하다. 창을 열어도 외기는 느긋하여 찬 기운이 없고 웅달진 담그늘에 쌓여서 좀처럼 녹을 줄 모르던 잔설도 어느새 녹아 버린다. 겨우내 방안에 갇혀 있다 해방된 꼬마들의 재잘거림과 함성이 봄빛을 타고 들려온다. 인동(忍冬)을 꺾은 나무들은 푸릇푸릇 물기가 오르고 새봄을 짙추고 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봄이 온 것이다. 진정 봄은 우리로 하여금 항거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닥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부활절(춘분지나 만월지나 후 첫번째 맞는 주일)을 맞게 되는 우리는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활과 소망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절정은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부활의 역사성이나, 부활에서 찾은 현대적 의미를 깨고 들기에 앞서 살아계신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부활의 사건 자체에만 너무 중대시한다면 부활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죽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러 달려 나갔을 때에는 주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고, 무덤으로 달려 갔을 때에는 이미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 갔을 때에는 이미 하늘로 올라 가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 보고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완로의, 끝맺음의 주님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이다.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더 풍성한 삶의 입구」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천국내의 일보가 됨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상의 자아의 죽음은 승리생활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봄과 함께 맞는 부활절에 우리를 죽임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생명을 갖게 된 우리의 기쁨이 화창한 봄빛과 같이 맑고 찬란한 부활절이 되어야 하리라.

찬동가 감상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 171장)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몇 년 전인가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교회가 연합으로 새벽예배를 드린일이 있었다. 새벽에 거리에 나서자 사람들이 적지아니 보였고 택시들은 빈택시가 보이기 무섭게 손님으로 채워져 남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남산 줄기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남산 관광도로에 오자 이제는 마치 무슨 진군하는 행렬처럼 한 방향으로만 사람들이 가는 것이었다. 맘속으로 부러워듯한 감격이 솟아 올랐다. 속된 인간이라도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 많았는 가운데 한층 한층 속이 뒹굴 때 저절로 감사가 흘러 나올것 같았다. 뭘지 모르게 괜히 기뻐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윽고 예배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찬송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부연 수은등 아래 경건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성스레 찬송을 부르는 속에 끼어들어 나도 저절로 그옛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같은 마음이 되어 목청을 가다듬었다.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처음에는 새벽의 조용함을 그리는데, 아니면 곧 있을 부활의 사실을 앞둔 폭풍전 고요같이 조용히 불러지던 찬송은 "원수를 이김으로....."으로 부터는 부활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 힘차게 되었다.

이 찬송가는 곡조와 가사를 모두 미국인 로버트 로리(Robert Lowry 1826~1899)가 지은 것이다. 로리는 한손(Hanson) 침례교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찬송가 작사와 작곡을 하였고 복음성가집간행에도 힘썼다. 그가 작곡작사한 것으로는 <구주를 떠나 살면서>(새 225), 울어도 못하네(새 256) 나의 죄를 씻기는(새 280)이있고 작곡만한 것으로는 <나의 갈길다 가도록>(새 353) 주 사랑하자는 다 찬미할 때에(새 252) 등이 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청년찬송가에는 무덤에 누우신.....이라고 번역 되었는데 무덤에 머물러.....라는 가사의 원뜻이 예수께서 장사 지낸바 되사 무덤속에 누워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말의 「누우신」이 「머물러」보다 원뜻을 빨리 전달하지 않을까?

우리는 부활절 한 주간만 이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성도로써 이 찬송을 늘 애창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2월 중 결혼)

- 교회회양/이정희집사 딸, 9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강영철군/본교회 직원, 13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유국철군/유덕영씨, 오희명권사 2남, 20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허경화양/주교교사, 23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 김병균군/김만익집사, 이봉남권사 2남, 23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유순규양/유병세집사, 이연호권사 딸, 23일, 오후 2시, 영빈관에서

위로합니다(2월 중 별세)

- 박정화씨/최경복집사 모친, 13일

2월 중 해외 이주자

- 임종화씨/제 2성가대원,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여행의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북한선교회 대회준비를 위해 애쓰시던 중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계속적으로 북한선교회 서울대회, 대구·부산대회를 인도하시느라고 극도로 피곤하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어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단위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염원속에 시작된 성전건축의 설계가 3월에 마치게 되면서 금년에 정지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부 해결 안된 성전 부지의 완전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파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3. 기도원 완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말경에 완공될 기도원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같은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4. 해외복음 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 분의 선교사님·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복녀랑 이북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구역장 노우트

구역집회 지침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구역예배는 매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과 행사 때문에 1, 2, 7, 8, 12월(5개월간)에는 모이지를 못한다. 그밖의 남은 7개월 동안 겨우 26주(16회) 정도 모이는 형편이다.

지금까지는 예배만 드리고 친교시간을 끝냈었으나 이제부터는 성경공부 위주로 모이게 된다. 이렇게 성경공부와 예배와 친교로 모이는 집회이기에 구역에 배라기보다는 구역집회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구역집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152개 구역 전체가 이 모임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혹 개별적으로 모이기 어렵거나 이웃구역과 연합으로 모이기를 원한다면 서로 의논 해서 합동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장소에 여러 구역이 모이거나 구역교사들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교체해 가면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구역집회는 보통 교회 저녁예배시간에 준하여 모이도록 할 것이며 원만히 모이지 못했을 때라도 시간이 되면 시작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공부 45분, 예배 15분, 친교 30분 정도로 시간을 배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모였다가 꼭 정한 시간에 폐회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공부가 끝나는 대로 뒤이어 찬송을 부르고 간단히 기도의 제목을 제시하는 정도로 설교하고(성경을 읽은 다음)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쳐야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될 것이다.

친교시간을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하여 구역장은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찬송공부, 간증, 신앙토론 등)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친교시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는 문제나 예외에 벗어나는 연동이다. 이런 문제로 시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구역 사정에 따라 자가정을 순회하면서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고정시킬 수도 있으나 구역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에 누를 끼치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

구역집회를 통하여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경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아 실력있는 교인들을 키우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먼저 구역요원들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구역교사들은 매달 첫주 일 저녁예배 1시간 전에 있는 예배공부에 꼭 참석할 것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다음호에 계속>

춘계 성례식을 거행

세례식(3월17일), 성찬식(3월19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봄과 가을에 베푸는 성례식중 봄철 성례식이 3월 17일(세례식)과 3월 19일(성찬식)에 베풀어진다. 성찬식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밤에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여 세우신 것이다.

이 성찬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끝까지 주님의 몸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영구히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상호관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일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말하고 있다.

이 성찬식에는 중현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차별하에 있는 사람과 분별력이 없는 유아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성찬은 주님의 고귀하신 삶과 피를 감작있게 기념하는 예식인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 세 연약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역교사임명—129명

구역권찰회는 지난 2월 26일 구역교사 129명(1지구:30명, 2지구:30명, 3지구:24명, 4지구:29명, 5지구:16명)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부터 검토하여 오던 것을 금년부터 확정,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의 구역예배는 예배와 친교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성경공부에 중점을 두어 성경공부·예배·친교로 계획된 구역집회를 갖게 된다.

금년에 임명받은 구역교사는 구역집회시 성경공부와 예배 등을 인도하게 된다. 장로, 구역장(집사·권사)과 집사들로 구성된 구역교사들은 지난 2월 20, 21일 양일간 구역교사훈련을 받았다.

성경공부교재는 성경전체를 7계단으로 다루게 되는 데 전도위원회 지도로 계신 정기성 목사님이 집필하신다. 구역교사들은 매월 첫주 저녁에배 한시간전에 모여 구역성경공부 준비시간을 갖는다. 금년도 구역집회는 3월 10일(금)부터 전구역이 일제히 실시하게 되는 데 구역교사가 있다라도 담당장로나 교역자가 순회시에는 장로나 교역자들이 구역집회를 인도하기로 했다. 또한 구역교사가 2인이상인 구역은 서로 교대로 구역집회를 인도할 수도 있다.

총신 졸업—5명

신학원 4명, 대학부 1명

지난 2월 17일 총회신학대학 졸업식에 우리 교회의



이정웅, 윤형철(중등부지도), 이준교(청년부부지도), 김중석(제이성가대지휘)전도사가 총회신학대학 신학원 구원율, 이양우(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 선생이 대학부를 각각 졸업했다.

이중에 이정웅 전도사는 성적최우수상을, 윤형철 전도사가 성적우수상을 이양우 선생이 성적우수상을 수상했다.

증경장로를 협동장로로

당회는 현재 증경장로로 교회에 봉사해오는 증경장로의 호칭을 협동장로로 바꿔부르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협동장로로는 교병욱·김신희·이복량·이봉섭 장로님 등 4 분이시다.

알립니다

도서실에서는 금년도 사업중 양성증가운동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책들을 수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논문집

가. 신학사논문 및 일반학사논문
나. 신학석사논문 및 일반석사논문
다. 1948년 이전에 제출된 모든 논문

2. 월간지

가. 기독교계통의 월간지·계간지
나. 사상 및 언론계통의 월간지·계간지
다. 1978년 이전에 출간된 모든것

3. 고서류

가. 1950년(단기 4283년) 이전에 출간된 모든 도서(일반 인쇄물도 포함)

중현교회 도서실

본교회 기관명 준말 결정

당회에서는, 교회의 행사가 증가됨에 따라 기관명 표기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여 표현하기 쉽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명준말을 심의하여 지난해 연말에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기관·부서간의 공문서나 각종 문서 또는 인쇄물의 우측상단에는 아래의 준말을 사용할 것이다.

총현교회 기관명 준말

기	관	명	준말	기	관	명	준말	기	관	명	준말
총	현	교	회	총	성	경	학	학	유	치	부
제	직	회	직	총	현	동	산	동	유	년	부
구	역	권	찰	찰	총	현	출	관	출	위	조
성	가	부	가	해	의	복	음	선	교	중	등
교	육	위	원	교	위	남	전	도	남	전	고
전	도	위	원	전	위	여	전	도	여	전	산
재	정	위	원	재	위	산	업	전	산	대	학
건	축	위	원	건	위	권	사	회	권	청	년
동	산	관	리	동	위	주	일	학	주	교	장
인	사	위	원	인	위	새	신	자	새	노	년
장	학	위	원	장	위	영	아	부	영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 3. 5헌재(매월 첫주 기준)

<집회>

<헌금>

구		분	남	여	계	예	배	주	일	학	교	계						
예	배	주	일	학	교								계					
														I	II	III	IV	111,260
						3,865,615	627,300	549,000	26,500	74,000	3,358,984	72,000						
2,770	23,150	26,440	32,735	26,015	61,820								73,550					
														9,621,972				

□ 신급별 교인통계 □

총	교	세	유	학	원
대	인	례	세	습	인
2,864	2,607/3,900	1,409/2,577	380/307	254/310	564/706

토막소식

*...해외선교사업을 위해 문봉제 권사(미국)가 100불을 최영덕 집사(아르헨티나)가 200불을 헌금했다.

*...산업전도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관한다.

*...장년새신자부는 2월 12일 학생신앙간증회를 가졌다.

*...영아부는 제6회 계절학교를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은혜중에 마쳤으며 2월 9일에는 학부형초청좌담회를 가졌다.

*...유치부는 2월 19일 사도신경 외우기대회를 유치부실에서 전학생이 거의 외운가운데 마쳤다.

*...유년부는 2월 24일 학습평가 및 교사철야기도회는 성화산기도원에서, 2월 1~28일까지 춘계 어린이대심방을 실시했다.

*...중등부는 2월 1~28일까지 전체 학생심방을 실시했으며 2월 12일에는 진도훈련을 2월 26일에는 연구수업을 가졌다.

*...고등부는 2월 중에 반별친목회를 담임교사중심으로 가졌으며, 2월 20~21일에는 성가대수련회를 하였다.

*...고등부는 2월 20일 반장훈련을 유년부실에서 가졌으며 학생특강을 두번에 걸쳐 강사 이행수 집사와 오신숙 선생을 모시고 가졌으며 2월 중에 학생전체심방을 실시하였다.

*...대학부는 2월 5일 정기총회를 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교사학생합동 철야기도회를 가졌으며 2월 28일~3월 1일까지 임원수련회를 흰돌산기도원에서 가졌다.

*...산전부에서는 2월 19일 유치부실에서 신앙간증회를 가졌으며 월중에 학생전체심방을 실시했다.

*...청년부는 2월 19일 설교발표회를 지육부주관으로 가져 신앙훈련을 쌓았으며 2월 26~28일까지 동기수련회를 양승달목사님을 모시고 청년부실에서 가졌다.

*...장년부에서는 2월 26일 장년부실에서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하였다.

*...노년부는 2월 26일 노년부실에서 학생특강을 가졌다.

전도용 카세트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7—9937·9738

대한에수교
장 로 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매년 맞는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특별히 이달호는 부활에 앞선 주님의 고난을 다루어 보았다.

정기성 목사님이 정리해 준 주님의 고난 1주일을 명상하며 보내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또한 제이성가대의 지휘로 수고하시는 김중석 전도사님이 수난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집필하셔서 우리가 항상 갖는 음악예배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고 은혜스럽게 할 것으로 믿는다 모두가 일독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었으면 한다.

*...새롭게 구역예배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다음 달부터는 구역집회시 사용할 성경공부교재를 실을 예정이다.

주일학교뿐만아니라 전교회가 공부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로 성원있기를 바란다.

*...현재 전구역원에게 배부되고 있고 해외에 있는 교우, 지방에 있는 독자들에게 또한 각개인들의 전도용으로 친지들에게 보내는 월간충현의 배부선이 다소 조정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발간부수로는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깊은 이해로 협조 있으시기 바란다. <이>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산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영철 박성수 정은표

이현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래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현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정주찬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3월호 통권 제51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현 수

대한에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3월 19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북한선교를 위한 서울대집회가 북한선교회(이사장 : 김창인) 주최로 지난 2월 23-26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다.



◆ 춘계성례식이 지난 3월 17일 저녁에 있었다. 이에 앞서 15·16일 양일간에 걸쳐 문답하는 일이 있었다.



◆ 78년도 새학기 성경학원 및 지도자 양성부 제 13기가 3월 5일 개강했다.



◆ 교육위원회 주최 주교실무자 교육이 지난 3월 12일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무(회계·서기) 및 교과 분과에 대한 교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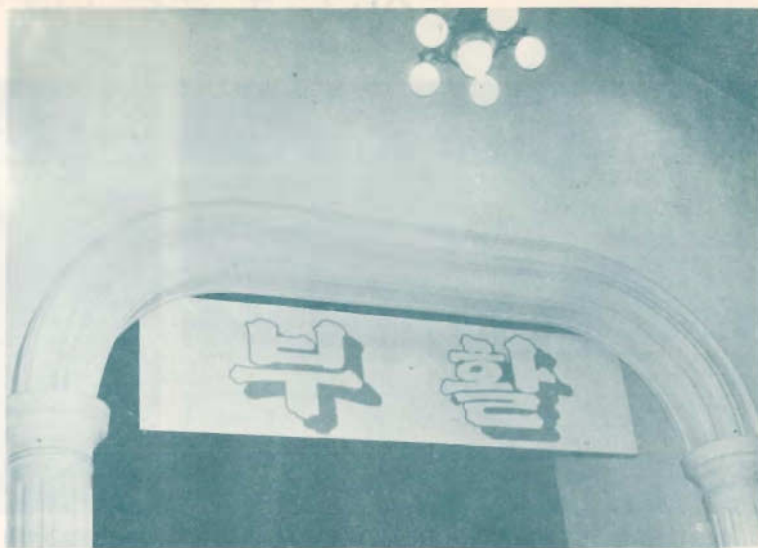


◆ 청년부는 지난 3월 1일 도봉산으로 산상예배를 가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



◆ 새 성전 건축 기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중인 시내 강남구 논현동 건축부지

실로암
못가에서



부활절

제라아드 홉킨스

항아리를 깨뜨려 나드의 기름을 흘려라,
영거주춤하여 값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진주를, 담백석을, 홍옥을 가져오라,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지 말아라.
남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부을지이다.
오늘은 부활절 — 기쁜 날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지이다, 성전을 장식할지이다,
땅위에서는 거기가 텅 빈 곳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은 향기로운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느니, 하늘의 기쁨을 위
해 그것을 내어 놓아라.
지금은 부활절 아침이 아닌가.

하늘로부터 기쁨을 모아 들일지이다,
대지로부터는 가르침을 배워 들일지이다,
하늘을 향해 꽃송이는 그 봉오리를 열고, 봄날의 기쁨을 바라보
고 있다.
대지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
대지는 겨울날의 옷을 벗어 버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몸을 꾸미고 있다.

회색 옷을 벗어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어라,
슬픔의 옷을 벗고 향기로운,
형클어진 머리를 벗어 화환으로 장식하고,
슬픔에 젖어 무거운 발걸음 대신 생기있게 날뛰어라.
마음을 한껏 열어 크낙한 기쁨을
이 부활절에 맞아 들일지이다.

차고 넘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지이다.
하나님의 식탁을 가득하게 채울지이다.
삼위일체 신과 가락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찬미와 기도와 노래를 뒤섞어 부를지이다.
오늘 이 날부터 영혼으로 하여금 길이 길이
아침마다 부활을 맞이하게 할지이다.

* 제라아드 홉킨스 (Gerard Manley Hopkins, 1844-89) : 영국의 시인. 이 시는 로버트 브릿지스 (Robert Bridges)가 1930년에 엮은 제라아드 홉킨스의 시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 시 '부활절' 전편에는 그대로 환희가 넘쳐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기쁘게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정이 처음부터 나타나 있다. "항아리를 깨뜨려 나드의 기름을 흘려라"는 귀절이나, "오늘부터 영혼으로 하여금 길이 부활을 맞이하게 하라"는 끝 귀절이 모두 환희에 차 있다.